

사설

불교계 변화와 자정 계기로

도박 사건에 연루돼 그 동안 재가 연대로부터 사퇴 압력을 받아왔던 성혜스님이 조계종 기획실장 소임을 물러났다. 재가연대는 지난 해 10월 성혜스님이 기획실장으로 임명되자, 즉각 성명을 발표해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다. 교구본사와 특별분담금 사할, 관란사 사할 등 주요 사찰에 대한 감사와 사찰복지지원 시 타당성여부를 조사하고 판단하는 업무를 관장하는 부서의 장에 국법과 종법으로 처벌받을 스님이 임명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것이 재가연대의 주장이었다. 마침내 지난 6일 성혜스님은 총무원장 정대스님에게 사표를 냈고, 원장은 사표를 수리했다.

재가자들이 총무원 교역직 총무원 인사를 철회하라고 요구하는 움직임은 일이 원만하게 마무리된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한다. 성숙한 불교의 한 모습을 보여준 것이라고 평가한다. 이후 조계종을 비롯한 각 종단의 총무원과 불교를 대표하는 단체의 주요 소임자에게는 엄격한 도덕성의 잣대가 적용되어야 한다. 인사청문회와

같은 제도의 도입도 적극 고려해볼만한 일이다. 그래서 혹 혹여 있겠다면 참회하는 절차를 거치고, 소임자로서의 계획과 소신도 밝힐 수 있다면 소임을 맡는 당사자나 불자 모두에게 좋은 일이다.

스님들과 불자들은 불교 안에서 적든 큰 큰 소임을 맡기 마련이다. 불교 안에서 소임을 맡을 자격의 첫째 조건은 능력이 아니다. 대중과 화합할 수 있어야 하고, 높은 도덕성의 확보가 첫째이다. 능력은 그 다음이다. 특히 종단의 중앙총무기관과 같은 곳의 소임자에게는 책임과 권한이 더욱 큰 만큼 화합을 위한 하심과 도덕성의 확보가 더욱 요구된다.

최근 언론과 종교학자들 사이에서 종교 개혁에 대한 논의가 뜨겁다. 이번 조계종 기획실장의 사퇴를 계기로 스님들과 재가자들 스스로 부처님 가르침에 따라 생활하는지 되돌아보길 바란다. 또 재가연대에서 제안한 '공직청규'의 제정, 고위 공직 임명시 검증 절차의 제도화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전개되길 기대한다.

도심사찰 문화포교 나서자

사찰 안에 뮤지컬 전용극장이 문을 열었다. 지난 해 일산에 문을 연 여래사의 신사씨어터라는 곳인데, 3월 개관 기념 공연을 가졌다. 일산의 명소가 하나 탄생한 것이다. 뮤지컬 전용극장으로서는 '난타' 전용극장에 이어 두 번째이다. 여래사는 이곳을 지역주민들을 위한 어린이 연극과 가족극을 공연하려는 극단에 대한도 할 예정이라고 한다.

사찰은 부처님을 예배하는 공간이며, 스님들과 신자들이 수행정진하는 곳이다. 사찰의 고전적인 기능은 그렇다. 그렇다고 해서 사찰이 불자들의 전용공간은 아니다. 사찰의 문은 언제나 열려 있다. 담은 나지막해서 경계를 나타낼 뿐이다. 우리 불가의 선조들은 이렇듯 배타적인 영역을 나타내지 않았으며, 편가르기 의식을 물리쳤던 것이다.

여름이면 전국의 유수한 사찰에는 4-5일의 일정으로 마련된 수련회에 참가하려는 사람들의 발길이 빈번하다. 꼭 짜인 일상에 쫓기다 잠시라도 산사수명향 사찰에서 세속의 일을 놓아버리고 자기를 돌아보자는 뜻이다.

오랜 역사와 수행자의 향훈이 배어 있는 산중의 사찰이 샘물 같은 곳이라면, 도심의 사찰은 여러 모양을 가져도 무방하다. 오히려 현대사회의 다양한 욕구를 해소할 수 있는 공간으로서의 모양을 만들어가야 한다. 여래사처럼 지역사회를 위한 문화공간으로 자리잡는 것도 하나의 본보기이다.

몇 해 전 서울의 한 사암연합회에서는 1사찰에서 1복지시설을 운영하자고 의견을 모았다. 그 사암연합회에 소속한 모든 사찰들이 약속을 지키지는 못했으나, 지역사회에 보탬이 되는 사찰상을 만들어가자는 취지에는 모두 동의했다. 이 지역뿐만 아니라 여러 지역과 사찰에서 지역의 특성과 사찰의 역량이 맞는 새로운 사찰상 정립을 고민하고 있을 것이다. 그러면서도 뾰족한 수가 없어 생각으로만 그치는 경우도 많으리라 본다. 각 종단에서 지역사회의 욕구에 부응하는 사찰상의 본보기를 제시하는 역할을 해야 할 시기이다. 새로운 사찰상 정립을 위한 연구와 자료는 종단이 존재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수행환경 보존” 불심 뭉쳤다

선원수좌회 가야산 관통로 저지 결의  
한라·지리산 살리기 시민단체와 연대

불교계가 가야산·한라산·지리산 지키기에 나섰다. 조계종 전국선원수좌회는 7일 경상남도(국가지원지방도로 59호선, 가야-봉산간)가 가야산의 자연환경을 크게 훼손할 수 있다고 보고 도로개설 반대운동을 전개해 나가기로 했다. 전국의 선원에서 정진하고 있는 2천여 스님들의 대표자 모임인 전국선원수좌회는 5일 해인사에서 결의문을 채택하고, “가야산 내부를 관통하는 이 관광도로가 개설되면 대형 관광단지 조성돼 수행·문화환경의 훼손은 물론 아름다운 휴유동 계곡의 수질오염 등 생태계의 파급효과를 볼 것”이라고 주장했다.

해인사주지 세민도 6일 총회를 열어 정현스님을 위원장으로 하는 가야산 환경위원회를 구성하고 환경·시민단체들과 연계해 이 도로의 개설을 저지하기 위한 활동에 들어가기로 했다. 조계종 환경위원회가 이달말 발족 예정인 가운데 본사 차원의 환경위원회가 처음으로 구성된 것이다.

한라산케이블카설치 반대 제주 범불교대책위(위원장 강조스님)는 6일 제주도민연대와 함께 제주도의

한라산 케이블카 추진 강행 방침과 관련, 케이블카 추진 계획안의 환경부 제출이 임박함에 따라 전국적인 연대투쟁을 벌이기로 했다.

지리산살리기 댐 백지화 추진 범불교연대(상임대표 수경스님)는 지리산살리기국민행동과 함께 남원시가 지리산자락에 추진하고 있는 골프장과 대형 레포츠 단지 조성사업을 저지하기 위해 나섰다. 16일 종교계지도자들이 함께 하는 100일 합동기도와 백두대간 도보순례를 통해 무분별한 개발계획을 저지할 계획이다.

조계종 총무원은 “일련의 환경보존에 대한 불교도들의 뜻을 모아 전국에서 자행되고 있는 전통문화 및 자연환경의 파괴에 단호히 대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재경 기자

깊어가는 태고종 내분

중앙총회 13일 총무원장 불신임안 논의  
총무원 “절차 안갖춘 불법회의” 무효선언

중앙총무원장의 자격시비로 불거진 태고종의 내분이 격화되고 있어 교계의 우려를 사고 있다. “가야산 유사종교단체 가입설” 등에 대해 “사실무근이며 음해”라고 밝힌 중앙총무원장의 해명성담화문<본지 305호 3면 기사 참조>이 나온 직후인 3일 태고종 중앙총회의장 남파스님은 일부 총회의원들의 청원을 받아들여 중앙총무원장의 거취문제를 다룬 임시총회 개최를 전격적으로 공고했다. 13일 오전 11시 순천 선암사에서 열리는 제80회 임시총회의 안건은 △총무원장 불신임 요구 청원서 처리 △총무원장 출마후보 중회의원 자격자등상설에 따른 제척사유

등의안 처리 △기타 등이다. 그러나 총무원은 “종현종법상 중앙총회의 소집은 의장이 총무원장의 동의를 얻어 돼 있다”며 절차상의 결격사유를 들어 13일의 임시총회가 불법임을 주장하고, 7일 전체총회의원에 ‘13일 임시총회 가불법’임을 통지했다. 또 8일 집행부 전원이 참석한 확대 총무회의를 열고 중앙총회가 임시총회를 강행할 시 원천봉쇄도 불사할 것을 결의했다(8일 현재).

이경숙 기자

동국대 불교대 신규 교수  
1명만 임용...3명은 유보

불교대학 신규 교원 임용과 관련, 조건부 승인을 결의했던 동국대학원 이사회는 8일 5인 특별위원회를 열어 종교학 분야 1명만 임용하기로 했다. 나머지 3개 분야의 교원 임용은 하지 않기로 했다.

김선근 법인사무처장은 회의 결과 발표를 통해 “불교학과 초빙 예정자인 유석학 전공(묘주스님), 인명학 전공(우계선), 경주캠퍼스 불교문화대학 선학과 중국선사상 전공(진월스님) 분야의 3인에 대해서는 초빙 과정의 절차상 문제로 인하여 2001학년도 교원 초빙에

서 보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불교문화대 종교학 전공(윤영해) 분야는 초빙 과정이 적법하게 된 것으로 판단하여 초빙하기로 결의했다고 발표했다.

특별위원회가 끝난 후 송석구 총장은 기자간담회를 열어 “특별위원회의 결의를 수용한다”고 밝혔다.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했던 영배스님은 “불교대학의 경우 불교학을 발전시킬 수 있는 능력 있는 분들을 초빙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성운 기자



수덕사 승가대 첫 졸업식 수덕사 승가대학(학장 박창은)은 7일 제1회 졸업식을 갖고, 졸업생을 첫 배출했다. 이날 졸업식에서 학장 박창은은 “경허스님의 선교 합일정신을 계승, 선양해 부단없이 정진하자”고 졸업생들에게 강조했다. (이경숙 기자)

**현대만평**

다함께 나누면...

**불자용 수의·장엄구 나눈다**

21일 불교장외용품 발표회 불자수의 및 불교장의 장엄구가 새롭게 개발 보급된다.

조계종 중앙신도회, 전국불교장외연합회, 대한불교연합회는 21일 조계종 총무원 1층 불교회관에서 ‘불자용 수의와 장엄구 발표회’를 개최한다.

이날 발표되는 불자용 수의는 95년 경기도 파주에서 발견된 불상과 다리니가 찍힌 옷가지 30점을 기본자료로 2년간 연구 분석하여, 현대적 수의로 만든 것이다. 또 반야옹선(반도 삼바라밀 정진도 등 불교적 세계관을 상징화하는 장엄물로 제작했다. 백창기 중앙신도회장은 “불자들의 신앙적 자긍심과 일치감을 높이기 위해 불교적 세계관에 기초한 장외용품을 개발하게 됐다”며 “평생의례가 중요한 만큼 일반 사회차원으로도 불교장외용품 사용을 확산시켜 포교활성화를 이루도록 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02733-7278 김원우 기자

**조계종 포교원 군승교육**

조계종포교원은 군승후보생 수련회와 2001년 임관예정 예비군 승 입대전 교육을 실시한다. 군승 후보생 수련대회는 16일~19일 해군 2함대 해상사에서 포교원 포교국장 주경스님의 ‘종단의 이해’와 불교상담개발원 연구위원장 방귀희의 ‘불교와 상담’ 강의, 의식실법 실수, 군법당 순례 등으로 진행된다. 또한 2001년 임관예정 예비군승 입대전 교육은 19~21일 조계사 설법전에서 불교상담을 주제로 상담의 실제, 군내 선도활동에 필요한 상담기법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된다.

김두식 기자

2001년 대원불교대학 입학안내

**왜! 대원불교대학인가?**

최고의 불교학교수님들이 펼치는 주옥같은 강의로 불교의 진수를 만나보십시오.

**학부수**  
동국대 불교대학 불교학과 졸업, 철학박사. 현재는 동국대 사회교육원 교수 인터넷 불교대학 책임교수. 저서로 《원시불교 원전의 이해》 《원시불교와 초기대승불교 사상》 《근본불교의 가르침》의 다수.

**장학욱**  
부산대 사범대학 졸업, 동국대 불교학과와 동 대학원 석사. 일본 동경대 인도철학과 석·박사 졸업, 문학박사. 현재 동국대 사회교육원 교수. 저서로 《해동고승전연구》 《불교개혁론 강의실》 《대승기신론 이야기》의 다수.

**이경구**  
동국대 불교학과, 인도 바라나시 힌두대 불교학 박사.

**김사임**  
동국대 불교학과 인도불교 전공, 일본 국립 경도대에서 인도철학 연구, 동국대 불교학과 교수.

**조병교수**  
월운 스님, 혜거 스님, 권기종 교수, 정병조 교수.

**2001년 대원불교대학 신입생 모집 안내**

**강의시간** 3월 1일 개강, 주 3일(화, 수, 목) 출석, 야간 수업

**교육과목**

1학년	1학기(16주)	불교학 개론	인도불교사	불교경전개설	불교문화특강
	2학기(12주)	원시불교	아비달마(구사론)	반야사상	불교의식 실습
2학년	1학기(18주)	유식사상	중국불교사	한국불교사	우리말 불교의식
	2학기(12주)	법화사상	화엄사상	정토사상	선사상

**모집 및 전형 (2년제 야간·출강·통신과정)**

모집과목 및 인원	지원자격	제출서류	전형방법
· 불교학 출강 00명	· 체계적으로 불교교육을 원하는 자	· 입학원서(소정양식) 1부	· 서류전형
· 불교학 통신 00명	· 대원불교 지도자 자질 보유자	· 주민등록등본 1부 (사진 3매)	· 합격자 개별통지
· 불교학 편입 00명	· 타 불교대학 과정 졸업자	· 불교대학 졸업장 사본 (편입생에 한함)	· 편입생은 2학년 과정으로 입학

**원서교부 및 접수** 2001년 2월 17일까지(본 대학 교무과)

**특전사항**  
법사과정 이수 후 법사호 수여 · 포교실습 지망자 법회처 제공 · 포교당 종교법인 보호 · 자원봉사자 장학혜택 부여 · 동국대 불교대학원 입학자격

**大圓佛敎大學**

140-190 · 서울특별시 용산구 후암동 358-17  
TEL : (02)773-9171, 776-7156, 754-1613  
FAX : (02)756-7258